

“거짓 정보에 대응하는 선봉장 역할을”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전남일보 지령 1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전남일보가 1만호 지면을 발간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남일보는 그동안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4년5개월의 기간동안 사회 전반의 본질을 짚어보고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던 공공캠페인인 ‘공’ 프로젝트는 지역 언론을 넘어 한국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 프로젝트 시즌 2 역시 3개 지면의 광고를 포기하고 전 세계가 처한 여러 문제에 광주·전남의 시각을 더해 솔루션을 제안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화두를 끊임없이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짓 정보에 대응하는 선봉장 역할을 맡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상공인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전남일보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2만호, 3만호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경제성장 길잡이 기대”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전남일보는 1988년 창사 이래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매체로 거듭나기 위해 깊이 있는 취재와 공정한 보도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령 1만호 발행을 계기로 그동안 보여왔던 열정과 전문성, 독자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 언론 혁명의 주역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변화에 맞춰 목포상공회의소도 지역산업과 기업 활성화를 위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년 전 첫 호를 발행했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여 앞으로 지령 2만호, 3만호 발행을 향한 전남일보의 희망찬 새 역사를 응원합니다.

“건전한 비판·합리적 대안 제시를”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전남일보는 1988년 창사 이래 균형 있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지역개발을 선도하면서 전남지역의 대표언론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건강한 여론을 이끌어왔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역시 지역 상공인을 아우르는 포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투명한 운영, 전문성 강화는 물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와 여수국가산단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면서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자이자 여수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촉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1만호의 여정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남일보의 묵묵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수상공회의소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민 열망 담아내는 지역신문 응원할 것”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세상을 보는 균형 잡힌 시각과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전남일보는 지난 35년 동안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방향과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다정한 벗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라는 사시 아래 철저한 분석과 비전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론지로서 울금음을 지켜 왔습니다. 이런 진실에 대한 열정과 지역민과 함께하겠다는 저널리즘은 전남일보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지역신문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남일보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모바일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일원화해 뉴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종합 컨설팅 회사로 도약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남일보가 좋은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해 지령 1만호를 넘어 2만호, 3만호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되는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에 힘 되길”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모든 신문의 스포츠 지면은 인간의 승리와 성공을 알리는 소식으로 채워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자란 안세영 선수가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배드민턴 종목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여 우승을 차지했을 때, 도쿄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안산 선수가 하게 종목 최초 3관왕을 이룩하는 순간을 함께한 지역민들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정·공평을 상징하는 육상 경기의 동시 출발선과 도착선, 축구·농구 경기의 팀워크와 리더십, 승자와 패자간의 존중, 경쟁자와의 우정 등 스포츠 가치는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유익한 표준가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가치의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쉬워하는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파해 하나 되는 광주를 위한 전남일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전남체육 새 역사 만들기 앞장 서주길”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전남일보는 1988년 창사 이후 그동안 풀뿌리 지역 언론으로서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제안, 영산강 살리기와 무등산 보호 등 환경 문제, 올바른 정보와 특색있는 보도, 지역발전에도움이 되는 여론 형성과 수렴을 통해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는 호남 최고의 정론지로 발돋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와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전남도체육회에서 경쟁력 있는 전남체육, 건강한 전남도를 위해,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 발전과 체육복지, 공정한 체육지원 실현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일보가 지역 지방자치 현안과 가려진 삶의 현장을 조명하며 뛰어난 통찰력과 혜안으로 전남체육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드는 데 함께 앞장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화전당의 힘찬 도약과 변화 함께 해주길”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1989년 1월 창간된 전남일보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역 대표 신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이제 만 번째 신문까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기관인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내년이면 개관 10주년을 맞습니다. 전당도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기관이자 아시아문화예술 교류의 플랫폼 역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가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고,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일보는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과 공정한 정론, 적극적인 소통으로 우리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세계적인 기관을 지향하는 우리 문화전당의 힘찬 도약과 변화의 과정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창’”



고병일 광주은행장

전남일보가 창사한 1988년 그 해는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광주시대로 불리었던 1980년 5·18 항쟁이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되기 시작한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1995년에는 광주의 오월을 바로 세우고자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 광주학살에 개입한 사실을 전남일보가 세상에 처음 알리며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제기하고, 영산강 오염을 고발해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벼랑 끝에 몰린 농어민의 실태 등을 꾸준히 보도하면서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전남일보가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울고 웃는 호남인들의 꿈과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지역 대표 정론지로 발전 거듭하길”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1989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40년 가까이 광주 전남 지역민의 곁에는 언제나 전남일보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전남일보의 울금은 펜은 결코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수고의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전남일보의 1만 번째 신문은 그래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1만 번째 신문이 나오기까지, 1만 번의 고민, 1만 번의 각오, 1만 번의 용기, 그뿐이겠습니까. 그 이상 수십 곱절의 노고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건설적인 제언을 아끼지 않고, 소시민의 희로애락을 따뜻하게 보듬을 줄 알았던 전남일보였습니다. 전남일보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신문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지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전남일보가 앞으로도 지역 대표 정론지로서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길 기원합니다.

“지역과 대학 상생하는 지방시대 함께 노력”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1988년 창사 이래 불의에 저항하며 진실을 밝히고, 성장의 그늘 아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의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며 미래를 제시하는 사회적 공기의 역할에 충실해 온 전남일보 임원과 기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남일보가 추구하는 ‘호남의 꿈과 미래가 되자’는 비전은 1946년 해방 후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호남민의 손으로 세워진 조선대학교 설립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언론이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며 지역을 밝히는 점에서 대학과 언론은 지역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지방시대로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선대학교는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혁신을 이끌고 성장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 민심에 귀 기울이는 언론 되길”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

그동안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해주시던 전남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애독자 입장에서 전남일보의 ‘천인보’ 프로젝트는 지역언론의 저력과 내공을 보여준 대표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천인보’ 프로젝트는 ‘광주사람들’이란 제목을 거쳐 현재는 ‘호남인입니다’로 9세 초등학생부터 90세 어르신까지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주 1회, 500자로 꼭꼭 담아 지역민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600명 정도 소개됐고, 앞으로 100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장대한 기획과 흔들림 없는 실행력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인’의 기획 목적인 ‘광주 사람들이 말하는 광주를 통해 한국을 봅니다’처럼 앞으로도 지역 민심에 귀 기울이고, 시민에게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쫓아가는 언론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실보도 실천’ 창간 초심 잃지 않기를”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

전남일보가 지령 1만호를 맞이합니다. 1980년 신군부의 신문방송통신 통제, 1987년 6·10민주항쟁 결과 언론자유화의 열망으로 창간했던 전남일보의 지령 1만호이니만큼 의미와 감회가 남다릅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도 용기가 필요했던 엄혹한 시절 ‘진실보도 실천’을 기치로 첫발을 내디딘 전남일보가 창간 초심을 잃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여지껏 그려왔던 것처럼 독자들에게 잘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4000만이 1인 미디어 매체 시대에기에 중심을 잡아주는 전남일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년을 견디면 천년을 쓰이는 것처럼, 지령 1만호 넘어 다가오는 2만호도 미리 기대해 봅니다.